

울산광역시 울주군

직업 : 교사

이름 : 박영희

이메일 :

태그제목 : 봄과 나

2015년 5월 12일 화요일 날씨 맑음

이빨이 아파서 밤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새벽 6시 스마트 폰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겨우 밥 한술 뜨고 7시 40분 학교로 출근하였다. 학교 신발장 바닥에 깨끗이 빨린 회색 양말이 한 켤레 떨어져 있기에 혹 내 덧신을 떨어뜨렸나하고 주워보니 그냥 학생용 양말이다. 감기 기운도 있어서인지 머리 밑이 따갑기에 스타킹 위에 그 양말을 신고 다니다가 점심시간 행정실장으로 부터 패션에 대한 테러라는 풍크를 들었다.

아침 일찍 강북청 김 장학사가 6/23 국가학력성취도평가 대비 기초부진아 지도 점검한다고 다녀가고, 오전 내내 수십 건의 공문을 읽고, 내부 문서 결재를 하고 나이스 복무관계 결재도 했다. 교장실에 내려가서 내일 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장 협의회 및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, 성안옛길 걷기 행사 등에 관해 협의하고 돌아서니 12시 점심시간이다.

월남고기 국수라는 메뉴의 식사와 함께 찬 바나나 우유를 반병 마셨는데,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였는지 갑자기 배가 꾸르륵거리더니 설사가 났다. 유산균 한 알과 아스피린 한 알을 삼키고 견디고 있다. 피곤이 쌓인 걸까 총체적으로 몸이 부실하다.

치과에 스케일링하러 갔다가 잇몸이 굵아 터져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말에 곡절 없이 잡혀 안 먹던 마이신에 소독약에 오늘은 아스피린까지. 거기다가 홍삼정도 구멍중 제자 함다희가 떠나올 때 선물로 준 작은 보온병에 담아 와서 마신다. 해마다 봄철이면 몸이 이 모양이다. 조심조심 이 시기를 넘겨야 하는데 올해는 관찮아서 태무심했다. 괜히 학교 옆 함월산 공원에서 팔 근육 키운다고 운동기구에 매달리기도 하고, 그이 따라 집 앞 문수산 등산도 하고 태화강 대공원에 가서 연우, 지우랑 꽃구경도 하다가 너무 몸을 무리한 것 같다.

한 달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시청하며 소파에서 빈둥대며 지내야 하는데 지난겨울부터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. 4월 주말 내내 혼자계신 엄마 만나러 도닥골 가야했고, 월요일 저녁 6시에는 박봄이 울산 내려와 벌침 맞는 것 뒷바라지 한다고 저녁때를 놓치기도 한다.

암튼 천상 부영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단 하루도 5시에 퇴근하여 귀가한 적이 없으니. 교감이 된 후 수업이 없어 몸이 편할 줄 알았더니 나름 시간은 너무 잘 지나가고 많은 부서의 일들을 컨트롤 하자니 그 일도 만만치는 않다. 지난 3년간 수업 20시간에 교무부장 업무까지 어떻게 견뎠는지. 며칠 먹고 자고 TV나 보며 폭 쉬

고 싶다. 눈 밑에 다크 서클이 끼고 입안도 몸이 피곤하니 툭하면 구혈이 생겨 신경 줄이 부풀어 오른다.

어젯밤엔 하도 피곤하여 9시 좀 넘어 잠자리에 들면서 방안 보일러 온도를 27도로 맞춰 놓은 바람에 한밤중 28도 까지 방안 온도가 치솟아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로 뛰쳐나와야 했다. 몸을 따뜻이 하자고 한 일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됐음이다. 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일교차가 심하여 컨디션 조절이 쉽지가 않다.

인간. 과거. 기억. 아카이브

Human & Memory Archives